

산업인력공단, 전국기능경기대회 성황리에 마쳐 1천800여 예비기술인 참가...10개국 인사도 참관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은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준우승, 대구광역시는 종합 3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예비숙련기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다. 올해는 '내 삶이 바뀌는 으뜸 기술'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5~12일 여수엑스포 등 6개 경기장에서 게임개발 등 50개 직종의 1천800여 예비숙련기술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대통령배)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점수 1천712점을 획득한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준우승으로 국무총리배를 가져갔고, 대구광역시가 3위에 게 수여되는 고용노동부장관배를 수상했다.

직종별 상위득점자 2명(팀)은 평가 경기를 거쳐 2019년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발평가전 출전 자격을 부여받는다.

올해 대회는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월-월요일'에서 '금-금요일'로 바뀌어 진행됐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숙련기술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기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안산중학교 등 20개교의 4천400여 명이 참여했다.

인문계고교에서 직업계고교로 재입학해 자신의 적성을 찾은 자동차체수리 직종의 금메달 수상자인 최자현 군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시작해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내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농업기계정비 직종의 서경진 군은 "끝까지 해봐야 후회가 없다"는 좌우명을 실천한 결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에는 글로벌 기술강국 한국의 기술인재 육성을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 러시아 등 10개국 49명의 외국 인사가 참관했다. IT 네트워크시스템, 의상디자인 등 5개 직종에 15명의 외국인 선수도 참여해 우리나라 선수와 기량을 겨뤘다.

공단은 더 많은 청년이 기술을 배워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숙련기술 체험캠프 인원도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산업현장교수와 청년구직자 간 멘토링을 확대 중이다.

이울러 그동안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 634명을 선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139명의 기능한국인을 발굴하는 등 이들이 청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준비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우리나라 숙련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이 기술을 배워 성장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생성장 코디네이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실력중심사회를 선도해 갑니다.